



노고단~천왕봉까지, 25.5km의 장쾌한 지리산 주능선에 질게 깔리 운해(雲海). 멀리 보이는 곳이 최고봉 천왕봉(1,915m)이다. 지리산은 1967년 국내 첫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나, 관리 부실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 3道를 품은 '자연·문화유산의 보고'

## 국립공원 40년

### <2부> 지리산의 오늘과 내일

#### ① 국내 1호·최대 규모 국립공원

전남과 전북, 경남을 끈 지리산은 1개 시(市), 4개 군(郡) 15개 읍·면의 행정구역이 속해 있다. 면적은 471.758㎢로 국내 20개 국립공원 중 최대 규모의 산악형 국립공원이다. 설악산의 2.2배, 한라산의 3.4배로 국내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넓다. 천왕봉에서 노고단에 이르는 주능선의 거리가 25.5km

이며, 지리산의 둘레는 자그마치 320여km에 이른다.

#### 1,500m 넘는 봉우리 10개

천왕봉(1천915m), 반야봉(1천723m), 노고단(1천507m)의 3대 주봉을 중심으로 1천

500m가 넘는 봉우리 10여 개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여기에 절선계곡·파아골·한신계곡 등 8개의 깊고 긴 계곡이 어우러지면서 계절마다 독특하고 이를다운 자연풍광을 뽐내고 있다.

한반도 남쪽의 최대 산악지대인 지리산은 주능선을 중심으로 각각 남북으로 큰 강이 흘러내리고 있다. 하나는 낙동강 지류인 남강의 상류로서 함양 산청을 거쳐 흐르고, 또 하나는 멀리 미아산과 봉황산으로부터 흘러온 섬진강이다. 이를 강으로 흘러드는 화개천·연곡천·동천·경호강·덕천강 등 10여 개의 하천이 있고, 하천 주변에는 청화동, 백무동, 연곡동 등 여러 자연마을이 생겨나 산의 생명력을 더해 주고 있다.

지리산은 면적과 규모로만 국내 최대가 아니다. 한창한 고산지대와 온난한 산북지대가 있어 824종의 식물(목본 245·초본

579)이 원시림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421종(집승 41·조류 165·곤충류 215)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연의 보고(寶庫)'이기도 하다. 지리산에는 천연기념물인 사향노루를 비롯해 수달·청설모·오소리·담

사의 각황전(국보 제67호), 4사자 3층 석탑(국보 제35호)를 비롯한 8점의 국보와 56점의 보물들이 있다.

이처럼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과 문화유산

을 품에 안은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우

#### 식물 824종·동물 421종 서식

#### 관리 부실로 생태계 파괴 우려

비·반달곰 등의 희귀한 동식물이 보호를 받고 있다.

국내 유명 사찰과 많은 문화재들도 지리산의 품속에 안겨 있다. 화엄사와 실상사, 대원사 등 유명 사찰을 비롯해 국보로는 화엄

사리나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올해로 40년이 됐다. 하지만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진 지는 20년도 채 되지 않았다. 정부의 국립공원에 대한 이해 부족과 법령 미비 등으로 많은 시

#### 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이듬해인 1968년부터 1987년 7월까지 20년간을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원을 관리해오면서 관리 부실과 관리 기능 약화 등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보호 동·식물의 멸종 위기 초래,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되기도 했다.

#### 체계적·효율적 관리 시급

정부는 뒤늦게 1986년 국가 직접 관리 방침을 정하고 전문관리기관으로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비로소 국립공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돌입했다. 법령이 마련되거나 손질되고, 국립공원 관리 기능도 크게 강화되면서 선진 국립공원 틀을 갖춰가고 있다.

40세를 맞은 지리산 국립공원도 이제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준비하며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국내 1호·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답게 각종 생태계 보호 프로그램 시행과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 자생적인 시민단체도 생겨나고 있어 지리산 국립공원의 새로운 모습이 기대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j@kwangju.co.kr

# 건물 매도

## 5층 건물

• 위치 : 동구 대의동 39-1  
(전남여고 및 은편, 창동로터리)

• 대지 : 13평

• 건평 : 591평  
(지하1층~지상5층)

• 용도 : 학원, 병원, 시민실, 상기동

• 매매가 : 17억원  
(적은 금액으로 매입 가능)

## 3층 건물

• 위치 : 동구 정동 53  
(전남여고 후문 앞, 구MBC건너편)

• 대지 : 81평

• 건평 : 172평  
(지하1층~지상3층)

• 용도 : 고시원, 득서실, 학원, 디목의

• 매매가 : 7억원  
(수익성 양호함)

## 연락처

010-4610-3763

### 대인동삼일부동산

☎ 010-223-1140, 0210-701-011-8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산성서관나루)

###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협성되어 월세  
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 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  
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  
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  
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  
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  
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  
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 정우부동산

☎ (010) 47-488-~7 011-603-4788  
(은선동 한일빌딩부근)

### 건물매도

• 외곽도로변 한일빌딩부근 대  
지 120평 약 400평 지하 1층,  
지상 5층 매매가 13억 원대보  
증금 약 2억 월 450만원

• 외곽도로변 대지 84평 건평 약  
300평 지하 1층 지상 5층 각층  
당 50평 매매가 7억 5천 보증금  
1억 3천 월 420만원 월지 8억

### 토지매매

• 한일빌딩부근 대지 약 150평  
평당 매매가 250만원

• 봉선동 라인하이츠 입구 부근 대  
지 약 18평 매매가 4억 4천만원

• 대지 200평 대지 84평 2차선집  
평당 40만원

• 원가동 대지 100평 평당 40만원